어린이 책꽂이

▲시각, 과학과 역사를 꿰뚫어 보다!=인간의 오감의 중요성을 과학과 역사이야기에 접목시킨 시리즈. 눈의 단순한 기능에서부터 과학적 원리, 그에 얽힌 다양한 역사 이야기가 흥미롭다.

〈영교출판·9천원〉

▲돈보다 해피가 좋아=돈에 관한 어린이의 철학, 어린이의 인간관계, 어린이의 꿈을 다룬 10대들을 위한 감성동화. 주인공 민석이와 해피가 만들어 가는 티격태격 행복찾기 소동을 통해 꿈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열린 생각·9천500원〉

▲동물과 친구가 되는 책=동물들의 놀라운 삶의 방식과 지혜, 진화의 역사를 생생하고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보여준다. 늑대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 치타가 가젤을 사냥하는 장면은 마치 슬라이드로 한컷 한컷 넘겨보는 듯한 박진감을 준다.

〈웅진주니어·1만6천500원〉

▲얘들아. 학교가자=생생한 사진과 지도로 보는 세계 어린이들의 학교 이야기. 전쟁, 인권, 가난 등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풀어냈다.

〈푸른숲·1만8천800원〉

▲모나리자=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나 발명품을 역사·인물·과학·경제·문화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조명한 '세상에 무슨일이?' 시리즈.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노력과 재능으로 '모나리자'를 탄생시킨 경이로운 과정이 담겨 있다.

〈책그릇·9천800원〉

문화코드, '인간의 비밀' 푸는 열쇠

컬처코드 클로테르 라파이유 지음

조립 블럭 장난감으로 유명한 덴마크 회사 레고는 미국과 독일 시장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였다.

'자동차'용 레고 상자를 받아든 미국 아이들은 설명서는 제쳐두고 마음대로 블록을 맞추더니 자동차가 아닌,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어 냈다. 아이들은 블럭을 쌓고 부수며 '다양한' 조립물을 레고 한 상자면 여러 해를 놀 수 있었다. 서부 세계를 개척한 미국인들에게 인식된 코드는 '꿈꾸는 자유'였기 때문이다.

반면 독일의 아이들은 달랐다. 그들은 일단 '설명서'를 꼼꼼히 읽으며 정확히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그 모형을 선반 위에 곱게 올려두었다. 이제 또 다른 조립 블록이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오랫동안 혼란기를 겪었던 독일인들에게 어린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게 된 '질서(ORDER)'라는 코드가 만들어낸 결과다.

건강·음식·사랑·직업·돈 등 각국 문화차이 사례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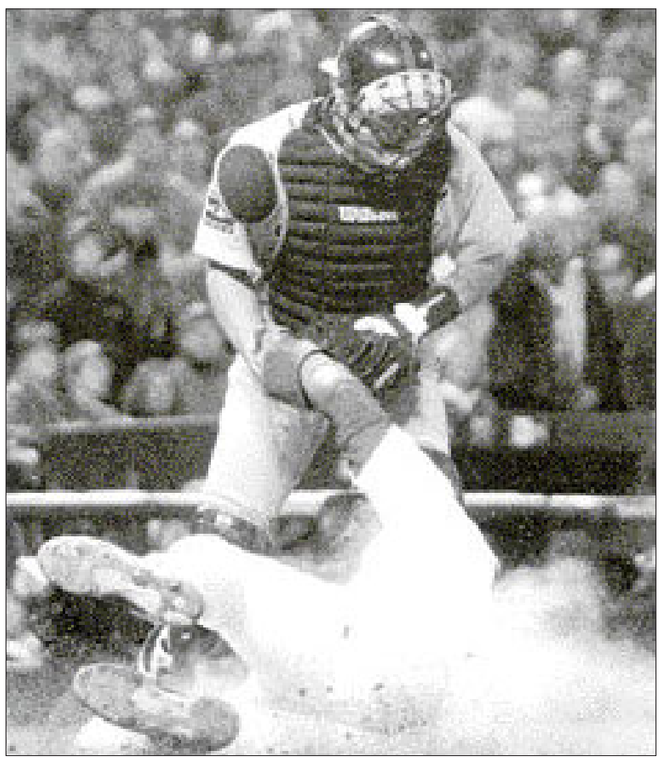
문화인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클로테르 라파이유가 쓴 '컬처 코드'는 건강, 사랑, 직업, 정치 등 삶 곳곳에서 전 세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밝힌 책으로 풍부한 사례 덕에 아주 재미있고 쉽게 읽힌다.

저자가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로 사용하는 '컬처 코드'는 '우리가 속한 문화를 통해 일정한 대상에 부여하는 무의식적 의미'다. 저자는 코드를 분석하면 '우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인들에게 '가정'과 '저녁식사'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귀환'과 '재결합'이라는 코드로 읽힌다. 미국인이 축구 대신 야구에 미치는 건 야구에서 점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홈플레이트(Home plate)에 들어와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가정(home)이 갖는 정서는 미국인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는 설명이다.

저자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사례는 '음식'과 관련된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음식'은 미국인들에 '연료'라는 코드로 읽힌다. 그래서 음식을 약간 남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프랑스와 달리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유행하고 '패스트푸드'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아내의 쇼핑에 동행했다 지쳐버린 경험이 있는 남편이라면 저자의 '쇼핑'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 아내에게 쇼핑은 '세상과의 재결합'이라는 코드로 해석된다. 3시간씩 쇼핑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결코 놀라지 말라는 말이다. 그건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야구에 열광하는건 야구에서 점수를 얻는 방법이 홈플레이트(Home plate)에 들어와야만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만큼 가정(home)이 갖는 정서는 미국인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저자는 그밖에 '왜 프랑스인들은 식사 자리에서 섹스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만 돈 이야기는 경박하다고 생각할까?'등 미국, 일본 등을 넘나들며 다양한 사례를 들려준다. 한국인과 과련된 코드가 없고 지나친 미국중심주의가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 글로벌 시대, 국적을 떠나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유용한 나침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저자는 프랑스는 '사상(IDEA)', 영국은 '계급(CLASS)', 미국은 '꿈(DREAM)'이라는 코드로 해석했다. 〈리더스북·1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미치 앨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죽음은 소중한 것

생의 정확한 귀결은 죽음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문제에 투항하지 못한다. 죽음에 제외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죽음에 준비와 이해가 당연한 것은 아니다. 어느 한 사람 제외된 것이 아니면서도 누구나 죽음에 세련되지 못하고 극도의 공포를 가지는 이 죽음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평화스럽게 사랑스럽게 죽음을 이해시키는 책이 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늘 타인의 죽음은 생각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선 외면하려고 한다. 너무 무섭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회피한다.

그러나 미치 앨봄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세종서적 펴냄)은 죽음에 직면하면서 농을 하고 여유를 가지며 목숨을 사랑하고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을 편안하게 가르쳐 준다.

모리 슈위츠라는 사회학과 교수가 있다. 사지를 쓰지 못하다 결국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루게릭병이라는 희귀한 병을 앓는 죽음을 앞둔 환자다. 그의 제자 미치는 모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서너달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인생을 화두로 삶과 죽음에 대한 강의를 적어 책으로 엮었다.

미치는 대학시절 사랑받던 제자였지만 자기 삶에 묶여 선생님을 잊고 있다가 16년 만에 선생님을 찾아가면서 화요일의 강의가

시작된다. 모리의 강의, 그리고 미치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해 준다.

인간이 중요하다고 떠드는 것들 중에 무의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을 날카롭게 바라보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죽음은 두려움만은 아닌 진정 인간이 나이들어 가면서 죽음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만든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데 너무나 쓸모없는 무의미한 것에 그 귀중한 시간을 소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적은 없는가. 책을 읽고 있으면 이 책을 만난 사실에 고맙고 이 책이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게 해 주는 또 하나의 스승을 만난 기분에 자신을 추스르게 된다. 평화롭고 고운 영혼을 만드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몫이다.

"미치, 어떻게 죽어야할지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네." 모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쉬우면서도 너무나 어려웠던 진리에 눈물나게 행복해지기도 한다. 긍적적인 죽음의 준비가 돼있는 사람은 삶도 적극적으로 아름답게 살게 된다고 강조하는 모리는 곧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삶의 구석구석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일그러진 웃음을 보이며 몇천번 그를 아름답다고 찬탄하게 만든다.

삶이 자연스럽듯 죽음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모리는 "죽음은 전염되지 않아. 그것은 우리들의 생의 마지막 부분일 뿐"이라고 말한다. 나는 내 생에 이 책을 읽은 것, 모리 선생님을 만난 것을 감사한다. "아버지는 우리를 지나가셨네 나무의 잎새마다 노래하면서…." 장례식에서 모리의 아들 롭이 컴밍스의 시를 읊었다. 죽음이야기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다니…. 아아 우리들의 삶이여!

신달자
〈시인〉

일상에서 캐낸 금쪽같은 경제학 지혜

경제학 비타민 한순구 지음

'경제학' 하면 손사래부터 치는 사람들이 많다. 숫자와 공식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는 현대인에 있어 필수과목이 돼버린 지 오래다.

'경제학비타민'을 쓴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따분하거나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제학을 우리 삶의 여러 사례들에 빗대 쉽게 설명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이유는 중산층의 숫자가 비교적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자가용 10부제 시행으로 1조원에 가까운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어 자가용 운행의 손익 계산서를 써보인다.

외국 학자들의 경제학 서적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외국의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저자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주제들을 알기 쉽게 풀어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경제신문·1만2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美 대통령 28인의 성장과정 등 소개

미국 대통령가의 가훈 우지앙 외 지음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세계의 대통령'으로 통한다. 이들을 키워낸 부모들은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 이들도 어렸을 때 장래희망이 '대통령'이었던 것일까.

'미국 대통령家의 가훈'은 중국의 전기 작가 우지앙, 장용, 왕영차이 등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28인의 성장과정과 가훈을 일화로 보여주는 책이다.

가난한 개척자 가정에서 태어나 농부와 선원, 우체국장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에이브러햄 링컨, 뉴욕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스물세 살의 젊은 나이에 뉴욕주 의회에 입성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테오도어 루즈벨트,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마친 뒤 배우와 탤런트를 지냈던 로널드 레이건 등.

저자들은 이들이 대통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집안의 특별한 자녀 교육법을 통해 '대통령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리틀북·9천5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